



## 황강, 12기 성당위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11차 회의서 강조

# 개혁정신으로 경영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추진하고 민영경제 고품질 발전 위해 량호한 조건 마련해야

### 호옥정 참석

3월 28일, 성당위 서기이며 성당위개혁전면심화위원회 주임인 황강은 12기 성당위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소집, 사회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민영기업좌담회에서의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중앙 8항 규정 정신 심입 관철 학습교양을 참담고 착실하게 전개하며 꾸준히 공을 들이고 끊임없이 힘을 들여 작풍을 바르게 하고 근본적인 것과 표면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며 개혁정신으로 경영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민영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량호한 조건을 마련하며 민영기업의 만족도로 학습교양의 성과를 검증해야 한다. 성당위 개혁전면심화위원회 부주임인 호옥정이 회의에 참석하여 사업요구를 제기했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거듭 학습하고 거듭 맞추어보고 거듭 시달하는 것이 점차 심입됨에 따라 길림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려는 우리의 결심은 더욱 커졌고 신심은 더욱 강해졌으며 지력은 더욱 증분해졌다. 결심과 신심과 지력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의 과학적인 지도에서 온 것이고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 국무원의 정책적 지원에서 온 것이며 길림 인민의 소박함과 강인함 그리고 각급 간부들이 착실하게 실제적인 일을 하는 데서 온 것이고 길림의 량호한 사업 기반과 광범한 민영기업에서 온 것이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중앙이 6년 만에 재차 민영기업좌담회를 소집하고 습근평 총서기가 참석하여 중요 연설을 발표한 것은 '두가지 흔들림없이' (两个毫不动摇)를 견지하는 확고한 결심을 구현했으며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생력군,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기반으로서의 민영경제의 지위, 역할을 구현했다. 민영기업은 길림의 진흥발전을 위해 중대한 공헌을 하고 마땅히

수 없는 공을 세웠는데 높이 평가해야 한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길림 민영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경영환경 최적화를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 정치생태를 정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학습교양을 전개하는 것을 하나로 융합시키며 간부들의 작풍을 한층 더 전환시키고 업무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정확한 채용방향과 사업방향을 튼튼히 구축하고 충성스럽고 깨끗하고 책임지고 덕재가 겸비한 간부를 선발하고 중용해야 한다. '관건 소수'의 시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각급 지도간부들은 솔선적으로 개혁개방을 한층 더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을 단단히 틀어쥐고 분관 사업을 단단히 틀어쥐며 임무 목록을 형성하고 정기적으로 총화함으로써 실효를 거두도록 확보해야 한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진지하게 학습하고 깊이 터득하고 예누리없이 실행하는 데서의 관건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일을 아무리 잘 배치해도 마지막에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그 원인은 틀림없이 형식주의와 관료주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종 결과인도를 견지하고 기업가 만족하는지 안하는지, 대중들이 기뻐하는지 안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4불2직' (四不两直) 감독검사와 비밀방문을 통해 사업이 폐쇄고리를 형성하고 실제적으로 실시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성당위개혁전면심화위원회 부주임인 호옥정이 회의에 참석하고 관련성 지도자, 성 직속 관련 부문 및 각시(주), 장백산보호개발구, 매하구시 책임자 동지, 길림성 주재 길림성 맞춤형협력사업조 조장이 회의에 열석했다. / 길림일보

## 연변주 2025년 봄철 대상 집중착공 활동 개최

### 호가복 착공 선포 흥경 연설

3월 30일, 연변주 당위와 정부는 2025년 연변주 봄철 대상 집중착공 활동을 개최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이 룡정시탄소섬유고신기술산업단지 주회장에서 활동에 참석함과 아울러 봄철 대상 집중착공을 선포했다. 주당위 부서기이며 주장인 흥경이 활동에 참가해 연설했다.

호가복은 3월은 대상건설의 좋은 시기이다. 호가복은 먼저 길림성국리악공장, 건강생태산업기지, 룡문양심객잔, 열림곡삼리조트, 해란명주탑 등 대상건설현장을 찾아 룡정시 봄철 신규 착공 대상 상황을 상세히 료해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대상건설은 유요 투자를 늘리고 경제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엔진이며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발전 지력을 증강하는 중요한 버팀목이다. 전 주 각급 당위와 정부는 길림성 당위와 각급의 사업보고를 청취할 때 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과 전국 '량회'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 시달하고 길림성 당위와 정부의 배치요구에 따라 봄철 대상 집중착공 활동을 새로운 기점으로 삼아 무실력 행하는 투지와 꾸준히 공을 들이는 끈기를 발휘해 대상 유치, 착지, 건설 등 제반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대상건설의 탄탄한 성과로 연변의 도약 추위를 힘있게 지지해야 한다.

정확하고도 고효과적으로 대상을 유치해야 한다. 본 현역 산업사슬의 취약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투자 유치 도감을 구전하게 보완하며 목표 기업을 놓치지 말고 해당 기업과의 소통협력, 연계방문을 강화하여 일련의 우수한 기업들을 서둘러 인입하고 일련의 중대한 대상을 서둘러 착지시키며 전통산업의 전환성격, 우세산업의 품질 능력 향상, 신형산업의 육성 장대를 일괄적으로 추진해 현역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데 새로운 동력을 주입해야 한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대상건설의 황금기를 충분히 잘 리용해야 한다. 제반 사업을 최대한 앞당겨 착공해야 할 신규 대상들이 모두 착공되고 지속건설 대상들이 전부 시공을 재개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의 최신 방향에 적극 접목해 중대한 기반시설, 전략성 신형산업, 도시 갱신 등 분야에 대상 총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대상 신청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며 민간투자의 활력을 전방위적으로 불러일으켜 유요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중점대상 추진전담팀 기제를 심화하고 전담 투기에 걸쳐 요소 보장을 잘하며 더욱 훌륭한 경영환경으로 더 많은 투자자들이 연변에 뿌리내리도록 흡인해야 한다. / 본지종합

연변주 2025년 봄철 대상 집중착공 활동을 선포했다. 주당위 부서기이며 주장인 흥경이 활동에 참가해 연설했다.

## 매하신구 제1회 인재대회 및 매하구시당위 인재사업회의 거행



3월 29일, 매하신구 제1회 인재대회 및 매하구시당위 인재사업회의가 펼쳐졌다. 이번 대회는 '지혜를 모아 활력으로 넘치는 신규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창조하자'는 주제를 둘러싸고 인재대사(大使)와 인재싱크탱크 전문가들에게 증서를 발급하고 정부·학교·기업간 협력협의를 체결하였으며 여러차례의 좌담교류회, 투자유치 추천소개회와 전문초빙회 등 풍부한 행사를 개최했다.

매하신구당위개혁전면심화위원회 서기이며 매하구시당위 서기인 주환은 인재싱크탱크 전문가 대표들에게 초빙서를 수여하고 류철탁이 인재대사 대표들에게 초빙서를 발급했다. 절강대학당위 전임 부서기이며 절강중의약대학당위 전임 서기이며 국무원 정부특수수당 수혜자이며 길

림성인재유치대사인 매하구 출신 역외 인재 장내대, 저명한 문화학자이며 청화대학, 북경대학, 중국인민대학의 객원교수이며 학술위원회 위원인 매하구 출신 역외 인재 리건신, 길림대학제1병원 당위 부서기이며 원장인 류빈 등 인사들이 교류발언을 했다. 회의에서 매하구시인민정부는 길림농업대학, 길림예술학원, 길시미디어 주식유한회사, 길림대학제1병원과 전면적 협력협의를 체결했다. 매하신구당위개혁전면심화위원회 서기이며 매하구시당위 서기인 주환은 "현재의 매하구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도량, 혁신적이

고 변화를 추구하는 자세, 행복하고 살기 좋은 바탕으로 고품질 발전의 시대의 장을 써나가고 있다. 우리는 더욱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매하구에 와서 혁신창업하고 손잡고 동행하며 고품질 발전의 약속에 동참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매하신구당위개혁전면심화위원회 서기이며 매하구시당위 서기인 주환은 "현재의 매하구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도량, 혁신적이

고 변화를 추구하는 자세, 행복하고 살기 좋은 바탕으로 고품질 발전의 시대의 장을 써나가고 있다. 우리는 더욱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매하구에 와서 혁신창업하고 손잡고 동행하며 고품질 발전의 약속에 동참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매하신구당위개혁전면심화위원회 서기이며 매하구시당위 서기인 주환은 "현재의 매하구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도량, 혁신적이

고 변화를 추구하는 자세, 행복하고 살기 좋은 바탕으로 고품질 발전의 시대의 장을 써나가고 있다. 우리는 더욱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매하구에 와서 혁신창업하고 손잡고 동행하며 고품질 발전의 약속에 동참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 길림대학제1병원, 전국 공립병원 상위 1% 진영에

최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023년도 전국 3급 공립병원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588개 3급 공립병원을 A, B, C, D 4개 등급으로 구분한 가운데 상위 1%를 A++ 등급으로 정했는데 전국에서 16개 병원이 이상인 매하구 출신 역외 인재 리건신, 길림대학제1병원 당위 부서기이며 원장인 류빈 등 인사들이 교류발언을 했다.

최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023년도 전국 3급 공립병원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588개 3급 공립병원을 A, B, C, D 4개 등급으로 구분한 가운데 상위 1%를 A++ 등급으로 정했는데 전국에서 16개 병원이 이상인 매하구 출신 역외 인재 리건신, 길림대학제1병원 당위 부서기이며 원장인 류빈 등 인사들이 교류발언을 했다.

1949년에 설립된 길림대학제1병원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소속(관할) 병원, 교육부 직속 대학교부속 병원, 국가 구역의료센터 수급병원, 국가 연구형 병원이다. 현재 2개 원구는 도합 근 56만평방미터에 달하

고 개방 침대는 5,900여개, 재직 종업원은 9,800여명, 각급 고차원 인재는 40여명이다. 국가 임상 중점성 문과가 30개, 국가급 플랫폼이 7개, 공공실험기술 플랫폼이 10개 있다. 2021년 이래 년평균 문진·응급진료 인수는 연인수로 543.2만여명, 년평균 수술 인수는 14.5만여명, 년평균 퇴원 환자수는 연인수로 29.5만여명이다. 루계로 신기술, 신치료법 480여개를 전개하고 국가급 프로젝트 200여개를 비준받았다.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간, 신장, 심장, 폐 이식 자질이 있는 병원으로서 장기 기증 총량은 1,100여건이고 이식 총량은 1,700여건으로 동북지역 1위, 전국 10위권에 들었다. / 길림일보

1985년—2025년  
《길림신문》  
창간 40주년 기념  
특집 판면 3, 4, 5, 6면



·유경봉기자 / 사진 매하신구 (매하구시) 응매체센터